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145~168
http://dx.doi.org/10.21211/JHUM.88.6

〈默齋日記〉의 서두 형식의 특징과 그 의미

조수미*

〈차 례〉

1. 서론
2.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
3.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의 특징
4.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默齋 李文楗(1494-1567)의 〈默齋日記〉(1535-1567)는 3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일기이다. 그래서인지 16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중기의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고증하는 사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묵재일기〉를 통해 16세기 조선의 풍경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묵재일기〉를 통해 조선시대를 읽어내는 것 못지않게 일기의 주인인 '이문건'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묵재일기〉도 엄연히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개성이 투영된 한 편의 작품이다. 일기를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구성하는 모든 형식은, 다른 모든 글쓰기 장르가 그렇듯이,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저자의 담론이 구체성을 띠고 나타난 결과다. 저자에게 의미 없는 작품의 요소란 없다.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표기일지라도 말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도 〈묵재일기〉가 보여주고 있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여겨지는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이문건은 매일의 일기를 시작할 때, 날짜와 날씨 정보에 이어 곧바로 '어디에 머물렀다.'는 말을 마치 공식인 것처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정보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기록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이문건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 '(묵재)당'에서만 지냈기 때문이다. 다른 유배일기에서는 이런 경우 대부분 공간(장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런데 이문건은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정보를 매일의 일기 서두에 반드시 기록하였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같다. 그는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말로 늘 일기를 시작함으로써,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지만, '(묵재)당에 머물러야 한다'는 당위를 자신에게 강박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 일기를 살펴보면 그의 삶은 다채로운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일의 일기가 시작되는 서두 부분의 반복적인 이 표현으로 인해 그가 삶의 대부분을 유배지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문의 부활을 꿈꾸며 전전긍긍하며 사느라 전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보이는 서두의 이 반복적인 기록은 이렇듯 저자 이문건의 내면 풍경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주제어: 이문건, 〈묵재일기〉, 묵재당, 가문의식

1. 서론

〈默齋日記〉(1535-1567)는 默齋 李文楗(1494-1567)이 거의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기록한 방대한 분량의 일기이다. 친필 10책이 전하고 있고 기간은 1535년 11월 1일부터 1567년 2월 16일까지 약 30여 년이다. '생활일기의 효시작'[1]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방대함으로 인해 일기문학 연구 외에도 다방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묵재일기〉는 조선시대, 특히 16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중기의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뒷받침하거나 방증하는 사료(史料)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예컨대 '조선중기의 민속', '조선중기의 관혼상제', '조선중기의 조세제도', '조선중기의 의료 및 질병', '조선중기의 아동교육', '조선중기의 노비의 삶' 등을 고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묵재일기〉가 이용된 것이다.[2]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흐름은 역사학적 측면이나 문학사적 측면 할 것 없이 모두 〈묵재일기〉를 통해 '시대'를 읽어내려고 하였

---

1) 이복규, 「묵재 이문건의 묵재일기에 대하여」,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299-319쪽.

2) 이밖에 일기에서 발견되는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조선후기 소설 확산의 상관성을 탐색한 연구(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동악어문학』 51, 동악어문학회, 2008, 282쪽) 등은 〈묵재일기〉를 문학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묵재일기〉 자체를 문학텍스트로 다룬 연구는 역사학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한편 특이하게도 〈묵재일기〉에는 필사본의 찢어진 종이 이면에 여러 편의 소설작품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 특히 조선 최대의 필화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궁금했던 〈설공찬전〉의 일부가 발견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끌었던 바 있다. 〈묵재일기〉 연구사에 있어 이러한 연구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니다. 그러나 본고는 〈묵재일기〉라는 작품 그 자체를 다룬 연구들의 경향을 살피고 있으므로 언급 하지 않았다.

다고 할 수 있다. 〈묵재일기〉처럼 방대한 분량의 일기가, 그것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 일기를 통해 '조선'이라는 시대의 실체를 찾아내고 읽어내려 노력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묵재일기〉를 통해 시대를 읽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연구의 목표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묵재일기〉를 통해 일기의 주인인 '이문건'을 읽어내는 일이다. 〈묵재일기〉도 엄연히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개성이 투영된 한 편의 작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묵재일기〉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해 소홀했었다. 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다른 글쓰기 장르들도 그렇듯이, 다소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저자의 담론이 구체성을 띠고 나타난 결과다. 저자에게 의미 없는 작품의 요소란 없다. 그것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표기일지라도 말이다. 〈묵재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크건 작건 이문건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묵재일기〉에 나타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여겨지는 기록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이문건은 매일의 일기를 시작할 때 날짜와 날씨 정보를 기록하고 난 뒤 반드시 자신이 머문 공간(장소)을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습관적 행위가 〈묵재일기〉가 속한 유배일기문학의 관습과 16세기 일기문학에 비추어볼 때 과연 예외적인 것이지, 예외적이라면 그 행위가 저자 이문건의 어떤 내적 풍경을 말해주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

날짜와 날씨 정보는 새로운 날의 일기가 시작된다는 일종의 부호다. 일기 장르가 가진 가장 뚜렷한 형식적 요소이지만 그 자체

로는 특별한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날짜와 날씨 정보에 이어 그 다음으로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야말로 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장, 즉 일기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기는 날짜와 날씨에 이어 그 어떤 규칙성도 없이 자유롭게 시작된다.

그런데 〈묵재일기〉에는 날짜와 날씨 정보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 어떤 규칙성이 발견된다. 이문건 자신이 그날그날 머문 장소가 어딘지를 매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어진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외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묵재일기〉의 일기들이 날짜, 날씨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표〉 〈묵재일기〉의 책별 내용 및 일기의 서두 문장[4]

책수	기 간	내 용	날짜, 날씨 정보 뒤에 이어진 문장
1	1535.11.1.~1537.6.3.	어머니 고령 신씨 시묘살이	與煇共守廬
2	1545.1.1.~4월, 9월~12월, 1546.1.1.~29.	관원 근무 시절, 유배 경위, 유배 노정, 유배 초기 생활	居同家
3	1546.2.1.~1547.1.28.	유배 생활	居同家
4	15481.1.~1548.6.30.	〃	居同家

3)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4) 『역주 묵재일기』, 김인규 역, 민속원, 2018 ; 『묵재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정긍식 외,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 교감 및 역주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과포털 사이트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7.〉) 등을 참고하였다.

5	1551.1.1.~1552.12.29.	〃	留堂/宿堂
6	1553.1.1.~1555.3.29.	〃	留堂/宿堂
7	1555.4.1.~1557.5.29.	〃	留堂/宿堂
8	1557.7.1.~1559.4.23	〃	留堂/宿堂/宿堂護孫
9	1561.1.7.~1562.10.28 1563.7.4.~12.30.	〃	留堂/宿堂/宿堂護孫
10	1563.1.1.~12.30. 1564.1.1.~1567.2.16.	〃	留堂/宿堂

1535년 11월부터 1536년은 이문건이 장조카 휘(煇)와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 고령 신씨(高靈申氏)의 시묘살이를 하던 기간이다. 이 시기의 일기들은 대부분 날짜와 날씨 정보 다음에 곧바로 '휘와 함께 여막을 지켰다.'는 말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천장례(遷葬禮)도 있었다.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 왕실의 묘소에 수용되어 어쩔 수 없이 이장하게 된 것이다.[5] 이문건은 천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서울 자신의 집에 머물며 시묘살이와 천장례로 지친 몸을 쉬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날들의 일기도 예외 없이 날짜와 날씨를 쓴 뒤 곧바로 '어디에서 머물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회암(檜庵), 두을언(豆乙彦)의 집, 저동(苧洞: 이문건의 집)과 서소문집(조카 휘의 집)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1545년의 일기는 〈묵재일기〉 전체 형식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예외적인 부분이다. 이 해 9월에 이문건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때는 '어디에서 머물렀다.'는 반복적인 표현이 거의 드물고, 함께 여막을 지켰던 장조카 휘가 극형을 받고 이문건 자신이 유배형에

5) 박미해, 「조선 중기 이문건가의 천장례 준비-묵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357-397쪽.

처해지기까지의 일들이 숨 가쁘게 기록되어 있다. 휘가 극형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이문건이 집안에 불어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에 대비하거나 초조히 왕명을 기다리는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9월 16일에 의금부 서리 최세홍이 와서 유배지가 성주(星州)로 정해졌다고 전하였고, 이에 이문건은 곧 출발하여 9월 28일에 성주에 도착하였다. 성주를 향해 출발한 날부터 도착한 날까지의 일기에는 자신의 유배행렬이 경유한 지역이 매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배 노정기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유배지에 도착한 후인 1545년 10월에는 이문건이 지내게 될 거처가 정해졌다. 처음에는 김옥손(金玉孫)의 집이었다가 곧 걸호음의 집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배순(裵純)의 집으로 정해졌다.[6] 가족들이 성주로 내려온 뒤에는 배순의 집 전체를 빌려 살게 되었는데, 이 집에서 이문건은 유배 생활 대부분을 보냈고 또 생을 마감하였다. 유배지에서 머물 곳이 정해진 뒤로는 날짜와 날씨를 쓴 뒤 곧바로 '居同家(같은 집에 머물렀다)'는 말로 대부분의 일기가 시작된다. 같은 집이란 처음에는 김옥손의 집을, 그 뒤에는 걸호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고, 1546년 4월부터 일기가 결락된 1548년 7월 이전까지는 배순의 집을 말하는 것이다.

1551년 1월부터 1557년 12월까지는 대부분 날짜와 날씨에 이어 '留堂/宿堂(당에 머물렀다)'이라는 말로 일기를 시작한다.[7] 이문건은 배순의 집을 통째로 빌려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집은 상가(上家)와 하가(下家), 동가(東家)로 구성되었고 각 공간은 그 쓰

6) 머무는 집이 자꾸 바뀐 이유는 거주환경의 불편함 외에 의원과의 거리 때문이기도 했다. 배순의 집을 정한 처음 이유도 의원의 집과 가깝기 때문이었다.(정정남, 「생활일기에서 본 16세기 읍내에 위치한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대한건축학회, 2003, 135-136쪽.)

7) 1557년 6월에는 일기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아들 온이 사망하였다.

임이 달랐다. 일기에서 말하는 '堂'은 이문건이 주로 거주한 상가, 즉 '묵재(默齋)'를 가리킨다.[8] 이 시기의 일기에는 안봉사라는 사찰도 눈에 띈다. 이곳은 원래 성주 이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신 사찰인데 이문건이 유배 이전에는 자주 찾지 못하다가 성주로 내려온 이후 종종 찾은 곳이다. 이문건은 개인적으로 안봉사 승려에게 부탁하여 동지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9] 그러나 이문건이 안봉사에 머문 날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은 묵재당에 있었다.

1558년 1월부터는 1562년까지는 날짜와 날씨에 이어 '宿堂護孫(손자를 돌보며 당에서 잤다)'는 말로 일기를 시작한다. 이수봉은 이문건의 외아들 이온(李熅: 1518~1557)이 어렵게 낳은 귀한 손자다. 이문건의 손자 사랑을 '가문계승과 출세지향이라는 강박증'[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기 이문건의 손자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남달랐다. 유배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문에 아들이 남긴 유일한 손자인 수봉은, 이문건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 시기 이문건은 손자 수봉을 자신이 거처하는 (묵재)당에서 늘 돌보며 지냈다. '손자를 돌보며 당에 머물렀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 시기 이문건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어린 손자와 함께 한다는 것만 앞의 시기와 다를 뿐, 그가 늘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것은 변함없다.

1561년 8월부터 1562년 10월까지는 이문건이 이런 저런 질병에 시달렸는데, 이때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증상은 어떤지를 먼저 기록하느라 '어디에 머물렀다'는 표현이 뒤로 밀리거나 가끔

8) 정정남, 「생활일기에서 본 16세기 읍내에 위치한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대한건축학회, 2003, 133-142쪽.

9) 박정미, 「조선 명종대 성주 안봉사의 불교의례-묵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4, 135-170쪽.

10) 조은숙, 「묵재일기에 나타난 자녀교육과 갈등의 형상」, 『문학치료연구』 3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39쪽.

누락되기도 하였다.[11] 그러다 1562년 가을 이후로는 병세에 차도가 있었다. '약물을 먹지 않았다.'는 말로 일기를 시작하는 것이 한동안 이어진 뒤, 1563년 1월부터 일기가 끝나는 1567년 2월까지는 다시 날짜와 날씨에 이어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말로 일기가 시작된다.

요컨대 이문건은 일기를 시작할 때, 날짜와 날씨 정보에 이어 곧바로 '어디에 머물렀다.'는 말을 마치 공식인 것처럼 쓰고 있다. 상황에 따라, 예컨대 유배에 처해지는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자신을 포함한 가까운 가족 누군가가 질병에 시달렸다든지, 집안에 제사를 포함한 각종 대소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머물렀다'는 표현이 생략되거나 조금 뒤로 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날짜와 날씨 정보를 쓴 다음 '어디에 머물렀다'는 말을 반드시 기록한 뒤 매일의 일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문건은 유배기간 동안 거의 변함없이 묵재당이라는 공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빠트리지 않고 늘 '(묵재)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11) 국가의료체계가 지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의료는 재지의 사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문건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성주 유배 이후 적극적으로 약재 확보나 의료 활동에 참여하였다.(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사족의 의료 활동」,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3-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25쪽.) 이문건 자신이나 주변인들이 질병에 시달릴 때의 일기를 보면 약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문건은 약물에 대한 의료적 지식을 성주에서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의 특징

살펴보았듯이 〈묵재일기〉는 일기를 시작할 때마다 날짜, 날씨 다음에 반드시 자신이 머문 곳에 대해 먼저 기록하였다. 그런데 〈묵재일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규칙성이 일기문학의 관습에 비추어볼 때 과연 예외적인 것이었을까?

조선시대의 일기 전체를 두고 본다면 형식상의 일관된 관습을 도출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12] 〈묵재일기〉를 조선시대 일기 전체와 비교하여 예외적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묵재일기〉와 유형적 동질성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과 〈묵재일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즉 유배일기 유형의 작품과 〈묵재일기〉를 비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면서도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배일기는 연구자의 개념 규정에 따라 약 40여 편에서 60여 편으로 분류되고 있다.[13] 이 유배일기들의 내용요소와 형

---

12) 조선시대 일기는 그 범주조차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연구자들마다 조선 시대 일기에 대한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 내에서도 일기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작품 목록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학회, 2016, 75쪽.)

13) 황위주는 약 1600건의 일기자료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개인의 생활 일기 중 유배일기를 31편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참고하고 필자의 조사를 보충한 결과 현재 약 60여 편의 유배일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24쪽.) 이 가운데 본고에서 〈묵재일기〉와 비교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① 〈艱貞日錄〉(金櫻:1805~1866) ② 〈坎窞日記〉(金鑢:1766~1821)
③ 〈癸亥日史〉(洪翰周:1798~1868) ④ 〈公山日記〉(趙翊:1556~1613)
⑤ 〈光陽謫行日記〉(金侃:1653~1735) ⑥ 〈金若濟日記〉(金若濟:?)
⑦ 〈南遷錄〉(宋上琦:1657~1723) ⑧ 〈南遷錄〉(黃中允:1577~1648)

식요소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배일기의 내용은 대략 '유배 경위, 유배 노정, 유배 생활'로 구성된다. '유배 경위'는 말 그대로 본인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와 유배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주로 일기의 전반부에 위치하는데, 소명(疏明)을 겸해 길게 서술하기도 하고[14]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도 하고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유배 노정'은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들을 말한다. 경유한 지역과 이동한 거리, 만난 사람 등을 기록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배일기의 상당부분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 서술하는 '유배 생활' 부분이라고 하겠다.

유배일기 가운데는 유배 경위가 생략되고 유배 노정과 유배 생활로만 구성된 일기도 있고, 유배 노정이 마무리되는 순간 끝나는 일기도 있다. 유배 경위와 유배 노정은 간략히 쓰고 유배 생활만 중점적으로 서술한 일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내

---

⑨〈南遷日錄〉(沈魯崇:1762~1837) ⑩〈東遷日錄〉(金麟燮:1827~1903)
⑪〈富春堂北遷錄〉(李烱:1646~1694) ⑫〈北謫日記〉(趙憲:1544~1592)
⑬〈北征日記〉(安日履:1661~1731) ⑭〈北征日記〉(張俊泓:1810~?)
⑮〈北竄錄〉(李弼翼:1636~1698) ⑯〈北遷日記〉(尹陽來:1673~1751)
⑰〈西謫日記〉(金宇杭:1649~1723) ⑱〈西遷錄(上下)〉(李仁行:1758~1833)
⑲〈續陰晴史〉(金允植:1835~1920) ⑳〈愁州謫錄〉(尹昌垕:1713~1790)
㉑〈신도일록〉(李世輔:1832~1895) ㉒〈嚴壽日錄〉(嚴壽:1776~1836)
㉓〈玆山錄〉(朴遇賢:1829~1907) ㉔〈長沙日錄〉(申弘望:1600~1673)
㉕〈적소일기〉(金若行:1718~1788)㉖〈太和堂北征錄〉(李光燾:1688~1746)

14) 〈玆山錄〉(朴遇賢:1829~1907)은 유배 경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다. 특히 1873년 12월 13일에 의금부에 갇힌 뒤 그 다음날부터 이어진 국문의 과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국문을 주관하는 관리인 위관(委官)의 질문과 이에 박우현 본인이 답한 내용이 20여 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공초가 작성되는 과정까지도 서술하였다. 박조수(朴祖壽:1756~1820)가 할아버지 박성원(朴盛源: 1711~1779)의 유배를 배행하면서 기록한 〈남정일기〉는 할아버지가 유배 가게 된 빌미가 된 상소문의 내용을 거의 빠뜨림 없이 기록하였다. 이는 실록의 해당 날짜에 수록된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다.

용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묵재일기〉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유배일기의 형식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일기들은 여타의 일기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매일의 일기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히 적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 월 단위로 표기하기도 한다. 비교적 유배 노정을 기록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월, 일을 꼼꼼히 쓰는 경우가 많고, 유배지 도착 후의 기록에는 정확한 날짜를 꼬박꼬박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15] 날짜 정보가 구체적인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날짜 정보는 일기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다.

날짜 정보에 이어서 기록되는 것은 날씨 정보이다. '맑음, 비…' 등으로 간단히 기록하기도 하고,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날씨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했다…'등으로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날씨를 생략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16] 여타의 일기들과 마찬

---

15) 〈坎窞日記〉(金鑢: 1766~1821)도 마찬가지다. 유배지 부령에 도착하기 전까지 김려는 꼼꼼히 날짜를 썼다. 그러다 유배지 부령에 도착한 1797년 12월 10일자에 유배지에서의 생활 전반을 한꺼번에 길게 서술하고는 일기를 끝맺었다. 〈南遷錄〉(宋上琦: 1657~1723)의 경우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직후인 1722년 1월 19일까지는 날짜가 매우 꼼꼼히 기록되었다. 그러나 유배지 생활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9월 초, 4월 이후, 봄과 여름 사이, 10월 어느 날, 초봄 등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기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런 표기조차 없이 서술되기도 하였다. 〈신도일록〉(李世輔: 1832~1895)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만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꼼꼼히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적소일기〉(金若行: 1718~1788)는 시간의 흐름을 월 단위로 기록하였다.

16) 날씨 정보를 거의 빠트리지 않고 기록한 일기는 〈癸亥日史〉(洪翰周: 1798~1868), 〈南遷日錄〉(沈魯崇: 1762~1837), 〈東遷日錄〉(金麟燮: 1827~1903), 〈北征日記〉(張俊泓: 1810~?), 〈北遷日記〉(尹陽來: 1673~1751), 〈續陰晴史〉(金允植: 1835~1920), 〈愁州謫錄〉(尹昌垕: 1713~1790), 〈編管日記〉(黃翼再: 1682~1747) 정도다. 이 가운데 〈南遷日錄〉(沈魯崇: 1762~1837)과 〈東遷日錄〉(金麟燮: 1827~1903)은 유배 노정을 기록한 부분에는 날씨 정보를 종종 생략하다가,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 유배 생활을 기록한 부분에 와서야 날씨를 거의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지로 유배일기도 서두 부분에 날짜와 날씨 정보를 차례로 쓰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날짜와 날씨 정보 다음에 이어진 내용, 즉 일기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기록에 있어 일종의 '유배일기의 문학적 관습'이라 부를 만한 형식상의 규칙성이 발견되는가 하는 것이다.

유배일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유배 경위-유배 노정-유배 생활' 가운데, '유배 노정'을 기록한 부분만을 본다면 날짜와 날씨 정보 다음에 유배 경로에 대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언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언제 어느 곳을 경유했는지, 왜 지체되었는지, 어느 곳에서 묵었는지,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등을 기록하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배 노정도 공적(公的) 이동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금부노정기에는 하루 동안의 이동거리와 경유지역 등을 매우 꼼꼼히 정해 놓고 있다. 유배객의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이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배 노정에 대한 상세하고도 명확한 기록은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동한 거리, 경유한 곳 등 공간(장소)에 대한 기록을 일기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많고, 하루 동안 경유한 곳이 많으면 일기 중간 중간에 쓰지 않을 수도 없다. 〈묵재일기〉도 마찬가지다. '유배 노정'에 해당되는 날들의 일기에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 경유한 곳-공간(장소)-에 대해 일기의 서두부분이든 마지막 부분이든 상관없이 자세히 기록하였다.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유배지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조건에 따라 일기의 시작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서두 형식의 규칙성을 더 찾기 어렵다. 유배의 성격에 따라 유배객이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가령 혹독한 유배생활을 하게 된 경우, 예컨대 위리안치 되었거나 절도(絶島)에서

삼엄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자신이 머문 공간(장소)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비교적 유배생활이 풍족하고 안정적인 경우, 예컨대 그 지역 지방관의 비호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인근 명승지를 여행하는 일도 많고 친인척이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느 곳을 다녀왔는지, 어느 곳에서 묵었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장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편안한 유배 생활을 하는 유배객이라 하더라도 유배지의 정해진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공간(장소)에 대한 정보에 있어 매일 매일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배일기에는 대부분 공간(장소)에 대한 기록을 생략한다. 반복되는 사실, 동일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유배일기만의 특징은 아니다. 일반적인 기록행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유배일기'의 서두 형식에 있어, 날짜와 날씨 정보를 쓰는 것 외에 어떤 형식적인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유배 노정'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공간(장소)에 대한 정보가 흔하지만 그것도 서두 부분의 일관된 형식을 만들지는 않았다. 일상을 기록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묵재일기〉처럼 일기의 서두를 날짜와 날씨에 이어 자신이 머문 공간에 대해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 즉 반드시 머문 공간(장소)에 대해 먼저 밝히는 것으로써 하루의 일기를 시작하는 형식은 유배일기의 공통된 문학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묵재일기〉 서두의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16세기 일기들의 공

통된 특징이거나 적어도 공일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격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황위주[17]는 1600여 편의 일기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묵재일기〉와 동시대인 16세기 일기는 약 150여 편인데 내용미확인 작품을 제외하면 약 120여 편이다. 크게 국왕왕실 관련 일기, 공동체의 일기와 일지, 개인의 생활일기로 분류하고, 개인의 생활일기는 다시 사환일기, 기행일기, 여행기 계열, 종합 여행 기타, 사행일기, 해사록, 전쟁 종군 창의일기, 사건 견문일기, 독서 강학일기, 종합생활일기 등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 가운데 공일기의 성격이 강한 관청 일기, 개인 사환일기 등을 중심으로 일기 서두 형식에 있어서 〈묵재일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海行錄〉은 예조의 대마도 일본과의 외교교섭 기록인데, 날짜, 날씨 외에 주로 비변사에서 어떤 啓가 왔는지 등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일기가 시작되고 있다. 〈討逆日記〉은 鎭安현감 閔仁伯민인백의 정여립 체포 전말 일기인데, 마찬가지로 날짜 외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날씨도 생략되었다. 사환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연일기이다. 유희춘의 〈經筵日記〉는 강연에서 오간 말들과 논의들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또한 서두 형식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바로 강의 내용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고, 왕의 하교, 강에 참여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이나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말들로 시작하기도 하는 등 일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규칙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이의 경연일기인 〈石潭日記〉는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연에 한정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시작 부분의 형식적 규칙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묵재일기〉 서두의 형식적 특징이 16세기 일기들의 공

17) 황위주,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학진흥원, 2007.

통된 특징이거나 공일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18]

요컨대 〈묵재일기〉와 유형적, 시대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는 유배일기 및 16세기 일기 가운데 〈묵재일기〉처럼 일기의 서두에 자신이 머문 공간(장소)에 대해 먼저 명시하고 일기를 시작하는 규칙성을 띠는 작품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묵재일기〉의 이러한 서두 형식은 예외적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4. 〈묵재일기〉의 서두 형식의 의미

〈묵재일기〉는 유배가 정해질 즈음인 1545년 9월부터 유배일기의 세 가지 내용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유배일기의 모습을 보인다. 유배가 정해지기까지의 상황(1545년 9월 6일~9월 16일)인 '유배 경위',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1545년 9월 17일~9월 28일)인 '유배 노정', 이후로 대부분은 유배지에서의 생활인 '유배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형식적 요소에 있어서는 여타의 유배일기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소해 보이는 특징이 발견된다. 날짜와 날씨 정보 이후 일반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기록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비해 〈묵재일기〉는 빠짐없이 자신이 머문 공간(장소)를 명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그날의 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그 공간(장소)에 대한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처럼 빠짐없이 기

18) 대상 작품이 많기 때문에 더 살펴보아야 할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16세기 일기 특히 공일기적 성격의 일기에 있어서는 날짜, 날씨 외에 공간(장소)정보를 매일의 일기 서두에 명시하는 것이 적어도 흔한 일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문건은 유배 이전에는 어머니 시묘살이를 하느라 주로 여막을 지켰고, 유배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거처였던 (묵재)당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 가운데 여막에 대한 언급은 〈묵재일기〉 초반의 2~3년에 불과하므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표현은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말이 될 것이다. 유배지에서 배순의 집을 통째로 빌려 거주할 집을 제대로 갖추고 가족들도 이주해 온 뒤 나름대로 유배 생활의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로는 거의 전적으로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말이 일기의 서두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배객이 유배지의 정해진 한 공간(장소)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이문건은 20여 년 유배생활을 (묵재)당에서 지냈다. 따라서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말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보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런데 이문건은 왜 끊임없이 똑같은 사실을 쓰고 또 썼을까?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당연한 사실을, 생략해도 무방한, 아니 대부분의 일기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그 사실을 왜 쓰고 또 썼을까? 그것도 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말이다.

'(묵재)당에 있었다.'는 말은 그의 유배살이를 한 마디로 집약한 듯하다. 유배살이를 하는 도중에 당연히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두 형은 일찍 사망하고, 장조카 휘도 사화에 휩쓸려 죽었으며, 자신은 유배를 당하였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온전치 못한 그야말로 가문의 위기 상황에서 이문건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거웠다. 성향과 신분이 제각각인 숱한 노비들을 건사하며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처가의 세거지인 괴산으로 입향(入鄕)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나가기도 하였으며, 약재확보나 의료활동을 통해 지역에서의 입지를 다지려 노력하고, 심지

어 악기제작 등을 통해 탄금(彈琴) 취미의 지역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려 한 일 등[19]은 모두 이문건 개인의 사적(私的) 욕망에만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손자 수봉을 양육하기 위해 쏟은 노력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이문건은 비록 유배생활 중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의 인사들과 교유하고 집안을 경영하느라 동분서주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가문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양반 사대부가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다.

그가 늘 언급한 묵재당[20]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이문건의 집은 상가(上家)와 하가(下家), 동가(東家)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이문건이 주로 머물렀다고 한 '묵재당' 즉 상가는 집의 중심공간이며 주택 공간 위계상 가장 우위에 있던 곳으로 집안의 제사를 모시고 중요한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다.

그가 늘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특별할 리 없다. 그보다는 그가 늘 자신이 묵재당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일기의 첫머리에 기록하였다는 것 특별하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같다. '(묵

---

19)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였다.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묵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7-34쪽; 조은숙, 「묵재일기에 나타난 자녀교육과 갈등의 형상」, 『문학치료연구』 3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11-141쪽; 류속영, 「16세기 사대부 계층의 탄금 취미와 거문고-묵재일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211-258쪽;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사족의 의료 활동」,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3-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5-25쪽; 김소은, 「이문건가의 경제운영과 지출-괴산 입향을 관련하여-」,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24-49쪽; 남미혜,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 경영에 대한 일연구-묵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147-180쪽 등.

20) 본고에서 사용한 묵재당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정보는 정정남의 「생활일기에서 본 16세기 읍내에 위치한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대한건축학회, 2003) 133-142쪽을 참조한 것이다.

재)당에 머물렀다'는 말로 늘 일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지만, '(묵재)당에 머물러야 한다'는 당위, 무너져 가는 가문의 가장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늘 잊지 않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묵재일기〉의 그 숱한 날들의 일기가 '(묵재)당'이라는 공간에 대한 언급 없이 시작되었더라면, 이문건의 삶이 조금은 더 다채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늘 '(묵재)당에서'로 시작하는 그의 일기에서는 스스로를 강박하는 그림자가 느껴짐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묵재일기〉를 읽어보면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은 없다. 날짜와 날씨도 늘 바뀌었다. 오직 '(묵재)당에 머물렀다'는 것만 변하지 않았다. 이문건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에 있음을 기술하는 것으로 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각인시켰을 지도 모른다. 유배지에서도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희구하는 절박한 의지와 행위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묵재당이었다.

> 로렐 대처 울리히의 〈한 산파의 이야기-자술 일기에 근거한 마서 밸러드의 생애, 1785-1812〉(1990)… 9965일 동안의 일을 기록한 마서의 일기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성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일상성이야말로 한 평범한 농촌 여인이 살아간 치열한 삶의 궤적 그 자체였다.[21]

이문건의 〈묵재일기〉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묵재)당에의 강박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바로 그러한 강박이야말로 이문건의 유배생활 그 자체였다."쯤 될 것이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유배지의 제한되고 갇힌 공간인 (묵재)당에서 가문의 부

21) 곽차섭,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코기토』 8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33-134쪽.

활을 꿈꾸며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라 전력을 다 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묵재)당'은 일기에 그토록 자주 언급할 필요도 없는 공간이었다. 2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의 거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문건은 이 (묵재)당을 매일의 일기가 시작되는 첫 문장에 항상 기록하였다. 이곳은 어느 심심한 양반네의 그저 그런 거처가 아니었다. 이 공간은, 이문건의 모든 고민과 노력, 희망 혹은 절망이 폭발하던 장소였을 것이다.

5. 결론

본고가 주목한 것은 〈묵재일기〉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여겨지는 일기 서두의 기록과 이문건의 내적 풍경의 상관성에 대한 것이다. 흔히 〈묵재일기〉는 16세기 조선의 풍경을 재구성하는 일에 자주 소환되었지만, 본고는 이문건이라는 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일기는 비록 문학적 가공이 부족한 글이지만 엄연히 저자의 개성이 반영된 문학 작품이고,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저자에 대해 크건 작건 무엇이라도 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문건은 마치 공식인 양, 날짜와 날씨 정보에 이어 자신이 머문 공간(장소)에 대해 명기하는 것으로 매일의 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일견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 뒤에 어쩌면 이문건의 안타까운 강박이 작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본고가 내린 결론이다.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의 일기 서두에 변함없이 '(묵재)당에 머물렀다.'고 쓰는 것이 매우 예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정보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기는 역사학과 문학에서 모두 관심을 받는 드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학적 구조가 부족하고 사실적 기록에 가깝다는 이유로 문학보다는 주로 역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기가 예술적 구조와 외양을 갖추지 못했다[22]는 말은 옳다. 일기는 끝은 날지언정 절대 완결될 수는 없는 글이므로 전체를 조망하면서 내용을 구조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일기에는 숙고할만한 문학적 가치가 없는 것일까?

같은 땅에서 한 날 한 시에 같은 비를 맞으며 자라도 꽃들은 저마다 피듯이 인간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싶다. 동일한 시대적 환경, 어느 정도는 보편성이 내재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였다하더라도 한 인간의 삶은 제각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성적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한낱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편처럼 흩날리는 증거들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서사적, 해석학적 사유가 요구된다.[23] 따라서 일기는 시대와 인간성에 대한 보편 증거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기라는 무한히 자유로운 글쓰기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강화하고 위로하고 단련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默齋日記』, 국사편찬위원회, 1998.
『譯註 默齋日記』, 김인규 역, 민속원, 2018.

22) 곽차섭, 위의 논문, 115쪽.
23)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90~94쪽.

정긍식 외,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 묵재일기 교감 및 역주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성과포털사이트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7.〉

2. 논문

곽차섭,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코기토』8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13-142쪽.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7-34쪽.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사족의 의료 활동」,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3-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5-25쪽.
김소은, 「이문건가의 경제운영과 지출 – 괴산 입향을 관련하여 –」,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24-49쪽.
남미혜,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 경영에 대한 일연구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147-180쪽.
류속영, 「16세기 사대부 계층의 탄금 취미와 거문고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211-258쪽.
박미해, 「조선 중기 이문건가의 천장례 준비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357-397쪽.
박정미, 「조선 명종대 성주 안봉사의 불교의례-묵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4: 135-170쪽.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학회, 2016: 73-118쪽.
이복규, 「묵재 이문건의 묵재일기에 대하여」,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299-319쪽.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정정남, 「생활일기에서 본 16세기 읍내에 위치한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 대한건축학회, 2003: 133-142쪽.
조은숙, 「묵재일기에 나타난 자녀교육과 갈등의 형상」, 『문학치료연구』 3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11-141쪽.
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동악어문학』 51, 동악어문학회, 2008: 259-285쪽.

3. 단행본

『국역 옥오재집 4』, 박종훈 · 오승준 · 이관성 · 정만호 역, 문진, 2013.
『국역 智島流配日記』, 최성환 외 역, 신안문화사, 2010.
『錦坡遺集 玆山錄』, 김형만 역주, 신안문화원, 2016.
『글짓기 조심하소』, 오희복 역, 보리, 2006.
『동명선생문집 1,2』, 박미경 · 이지락 역, 국학진흥원, 2015.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유고문집 적소일기』, 김희동 · 김완진 현대 역, 목민, 2003.
『속음청사(제주문화총서36)』, 김익수 역, 제주문화, 2005.
『역주 수주적록』, 김남기 역, 남원윤씨종중 편찬, 2012.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황위주,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학진흥원, 2007.

(**투고일**: 2019. 8. 16 **심사완료일**: 2019. 9. 20 **게재확정일**: 2019. 9. 23)

조수미
소 속: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 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우:46242)
전자우편: 93chosm@hanmail.net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First Fentence in the Diary, *Mukjaeilgy*

Cho, Su-mi

The *Mukjaeilgy*(1535-1567) of Lee Mun-geon(1494-1567) was used as a Historical data to support or demonstrate various views on society, culture and institutions in the mid-Joseon Dynasty, around the 16th century. Many researchers have been trying to read the ages through the Mukjaeilgy.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ad the person who is called Lee Mun-geon. This is because it is a piece of work that reflects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 who recorded it. There is no meaningful element in the work to the author. Even if it is a simple formal notation or habitual notation.

What I notice in this paper is that it shows 'obsession with place' in the style of diary. At the start of the diary, the date and the weather immediately followed the word "where I stayed" as if it were official. In addition, before the exile 'yeomag', and after the exile 'Mukjaedang' was overwhelmingly.

In other words, *Mukjaeilgy* can be summarized in sentences such as 'I was at yeomag' and 'I was at Mukjaedang'. As a result, Lee Mun-geon's life seems to have been summarized in these two sentences. His diary shows that he has compelled himself in his life.

Key words: Lee Mun-geon, *Mukjaeilgy,* Mukjaedang, compelled himself